

코로나 때 저희 집은 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멜레온과 같은 적응력과 말과 같은 체력을 겸비한 준비된 해기사 김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약 7년간 생활했으며, 현재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과 스스로 운동을 수련하며 다진 탄탄한 체력을 겸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으로 이민을 갔다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현지 학교에 다니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선장으로서 부유하게 생활하시던 큰아버지의 권유로 항해사로서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현지의 컨테이너 야적장 가까이 정박해 있던 선박을 보며 '저런 배는 누가 조종할까?'라는 생각을 하던 저에게 항해사는 딱 맞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현지 한인회에서 알고 지낸 선배님들이 진학하신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존재를 알게 되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선종에 대해 학습하면서 탱커 선종에 특별한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 LPG 선박 실습을 통해 선박 운용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3학년 2학기 취업박람회 때 동지해운의 설명을 듣고 전 세계 LNG 선박의 1%를 차지하는 선종을 운용하는 회사 MOL과 감독님의 설명에 푹 빠지게 됩니다. 이 순간 저도 전 세계에서 LNG선을 최다 보유한 MOL에서 1%의 선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 목표 달성을 향한 열망과 열정을 더욱 키웠습니다.

저는 주어진 업무를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고자 할 때, 먼저 해당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SPARK INTERNATIONAL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주저하지 않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주어질 업무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일정을 관리하여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최신 기술과 지식을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동료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희망 승선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안의 장남으로서,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기에 10년보다도 오래 승선할 의지가 있습니다. 목표 승선 직책은 선장이며, 미래의 아내와 가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항해사관, 특히 선장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과 리더십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 및 선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 공감 상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고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학생회장과 학생장을 맡으며 리더십을 길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 이러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